

화순군, 오늘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시작



혼인신고 후 1년 지난 청년 부부 지원...읍·면행정복지센터 접수 첫 지급일 이후 1년마다 회당 200만원씩 5차례 걸쳐 총 1000만원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결혼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혼인을 감소,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

상으로,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결혼장려금 관련 게시물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3가지 지원 요건을 넘겨 모두 충족해야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남녀 모두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

우자가 화순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혼인 관계,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원금은 회당 2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 이후 1년마다 200만 원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미래농업대학 제14기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 '아열대학과' 신설 주목

장성미래농업대학이 제1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아열대학과'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립아열대작물실용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장성군은 아열대과수 재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아열대학과를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분석, 유망품종 관련 정보 공유, 현장 교육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참여 농가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개설되는 '스마트농업학과'도 이목을 끈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스마트팜'과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시설, 친환경 주력 품종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과 농가별 컨설팅 기회를 함께 제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학생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지며, 모집인원은 아열대학과 25명, 스마트농업학과 30명이다. 수업은 총 20회(100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 3일까지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

을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생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나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순항

저동 불편인·직장인 일과시간 고려...야간창구 운영·신청 기한 연장 검토

모든 시민에게 나주시사랑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나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8일 18시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체 11만6161명 중 7만9182명(68.17%)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지정 농협에서 상품권을 수령한 인원은 6만5404명(56.30%)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비용은 약 116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 94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더하면 210억원에 달하는 나주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



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을 통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 방문을 원칙으로 발열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질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과 시간 방문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고려해 읍·면·동 실정에 맞는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평일 야간 창구 운영, 접수 기한 연장 등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시설채소 스마트팜 교육생 모집

구례군이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과 저탄소 에너지절감을 키워드로 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대상 교육에 나섰다. 군은 시설채소 맞춤형 스마트팜 교육생 20명을 모집하여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시설이외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오는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4월 상순부터 1개월 간 이론 5회, 현장견학 1회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 활용 고품질 생산요령 등의 기술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61-780-2093)이나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올해 첫 개장 연기

코로나19 확산 차단위해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곡성군과 기차당뚝방마켓협동조합 측은 당초 3월 13일에 올해 첫 뚝방마켓을 개장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입장 인원과 참여 셀러 수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과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며 곡성군 내부에서 개장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백신 접종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역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과 조합 측

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협의하고 개장을 취소했다. 뚝방마켓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개장을 기다리셨는데 취소하게 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셀러와 방문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개장이 결정되면 뚝방마켓 블로그(https://gokseongtour.modoo.at/)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즉각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